

추모편지-윤동주 시인에게

“서시’ 본받아 부끄럼없이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읽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시인의 시는 ‘별 헤는 밤’이었습니다. 별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사랑하는 것들을 되새기는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면 별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읽게 된 시는 ‘서시’였는데 이 시 외에도 많은 시들을 읽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남아 있는 시가 ‘서시’였습니다. 하늘 아래 부끄럼

없이 살기를 바라고 작은 바람에도 괴워워하며 별과 함께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는 표현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매일매일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시 속의 하늘과 바람과 별이 시인이 사랑하셨던 것들이라는 점이 어딘가 서글픈 감정을 불러옵니다.

시인의 생애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셨고,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작품들에 감사를 보냅니다. 시인의 마음가짐을 본받아 한점 부끄럼 없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기를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장평중학교 3학년 채다희 올림.

■ 사진으로 본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귀무덤·금각사...생생한 체험이 나를 성장시켜요”



귀무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귀무덤을 탐방하였다. 처음 귀무덤을 들었을때 사람의 귀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사람의 귀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사람의 귀를 잘라 버릴 생각을 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지만 여기서 귀 뿐만 아니라 코도 잘라 버렸다는 말까지 들었을때, 그 당시 일본은 내가 생각하는 잔인함보다 훨씬 잔인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건우 기자



날까지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게 명예로운 죽임이지 않나 싶었다.
김혜민 기자

하고로모 학원중학교에 갔을 때 긴장을 많이 하고 갔지만 그곳에 가니 귀여운 1학년만 있었고 발표하는 걸 먼저 들어보니 긴장할 게 없었다. 학교 탐방도 했는데 학교가 아날로그 감성이 가득하여 일본의 느낌이 물씬 났다. 또 전통 장난감을 만드게 되었는데 쉽지 않았다. 학생들이 순수했고 웃겼으며 그 사이에 정이 들어버려서 헤어지기가 아쉬웠다.
김소영 기자

일본 학교와의 교류회
사실 처음 일본 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별로 흥



미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일본학교에 가야 할 날이 다가왔을 때 막상 너무 궁금했고 친해지고 싶어졌다. 그렇게 만난 하고로모 학원 중학교 1학년들을 만나니 그 애들이 너무나도 귀여웠고 재미있었다. 같이 놀 때 진심으로 아쉬워해주기도 하고 기뻐해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다. 다음에 또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언젠가 다시 일본에 가고 싶어졌다.
최단우 기자

일본 오사카 하고로모학원중학교에 가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일본의 장난감 ‘켄다마’도 같이 가지고 놀고 피카츄와 종이상도 같이 접었는데, 동심으로 돌아간듯한 시간이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만나 또 놀아주고 싶다.
김혜민 기자

■ 역사탐방 수업 후기

“나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희생 커다란 은혜”

여러사람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로 살지 않게 되어 감사하다.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까지 싸운 모습이 대단한 것 같다. 감옥에서 여러 인체 실험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실험을 진행한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같은 사람을 실험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김지후 기자



정말 많은 수업을 했지만 일본 간거만 기억난다. 윤동주 시비가 기억 남는다. 왜냐하면 편지를 읽었으니까. 윤동주 시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윤동주 시인 최고.
채다희 기자

일본을 가보니 많이 깨끗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본인지 다른 나라인지 신기할 때가 많았다. 일본의 화문화는 정말 좋은 문화 같다. 성들이 멋졌는데 금각사가 가장 예뻐했다.
김소영 기자

교토에 가서 본 금각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금으로 칠했는데 열마가 들었는지 궁금했다. 교토에 있던 기요미즈테라가 엄청 커서 무서웠다. 이렇게 큰 건물은 누가 지었는지 궁금했다. 오사카에 있던 천수각이 게임에서만 보던게 실제로 있어 신기했다. 게임에서 보라보라한 천수각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색이 초록초록한 색이어서 게임이

현실고증을 못 살린것 같아 아쉬웠다.
김혜민 기자

학교에서 장흥의 동화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자란곳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왔다. 많은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최단우 기자

역사탐방 후기 박건우

역사를 알고 달라진 나의 삶 설계도

만약 1년간 역사를 배우지 않고 일본을 갔다면, 과거도 현재도 매우 중요한 장소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배우며 역사를 알고 가게 되니까 같은 것을 봐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다양하게 이해 할 수 있었다.

만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면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짓을 잊고 사람들이 과거 또한 잊으며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생각하는 것들을 점차 줄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역사를 알면 어디를 가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아픔 등을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역사 하나하나가 뜻깊은 뜻이 담겨있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일본을 가게 된다면 지금 중학교 시절 배웠던 점을 잊지 않고 다시 되뇌이며 살아갈 것이다.

■ 회령진성 기념탑에서 이순신과 조선 수군을 기억하며



그 아무도 일본이 질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으며 회령진성에서 다시 일어나 일본의 수군과 맞서 싸웠다는게 멋지고 존경스럽다.
박건우 기자

이순신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며 장흥에 과거

조선의 수군기지였던 회령진성에 갔다. 이 회령진성은 임진왜란 당시 마지막으로 싸운 곳이라고 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만큼 회령진성의 모습과 풍경을 눈여겨봤다. 장흥이 내 생각보다 역사적인 장소가 많은 것에 놀라웠고, 신기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역사를 찾아 보고싶다.
최단우 기자



지혜마루 복합공간



지역사회 공감소통의 장
평생교육의 장
사랑 나눔의 장

